

대전에서 열리는 8일간의 핵융합 올림픽의 축제!

FEC(Fusion Energy Conference)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2008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제22차 FEC에서 대전이 차기행사 개최지로 결정된 이후, 정부(교육과학기술부)는 국가 핵융합연구소, 대전시와 함께 한국의 첫 번째 핵융합 올림픽을 준비해 왔다. 전문가들뿐만 아니라 관련 기업과 시민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이번 행사는 이제 만반의 준비를 마치고 진정한 핵융합 올림픽의 모습들을 보여줄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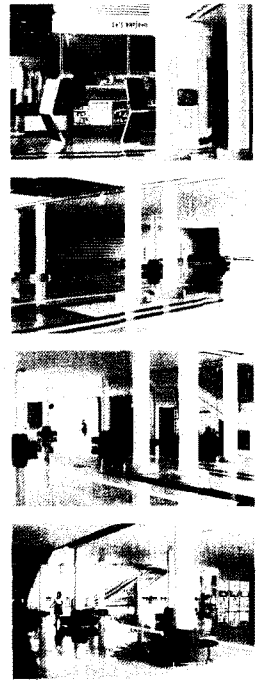


| 전체 행사일정 | | | |
|-------------------------------------|---------|-------------------------------|---------|
| 10월 9일 | 10월 10일 | 10월 11일 | 10월 16일 |
| IYC(International Youth Conference) | | FEC(Fusion Energy Conference) | |
| | 그린포럼 | | |
| 그린페스티벌(10.9~10.16) | | | |
| 국제핵융합기술전시회(10.11~10.14) | | | |

역대 최대 규모의 핵융합 올림픽

격년제로 개최되는 IAEA FEC는 '핵융합 올림픽(Fusion Olympic)'이라 불리는 핵융합 연구개발 분야에서 최고의 명성을 가진 전문가들이 모여 핵융합 에너지에 대한 연구 성과와 비전을 교환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핵융합 학술행사이다.

이번 FEC 2010 컨퍼런스는 핵융합 연구개발의 새로운 반세기를 맞이하는 기념비적인 행사로써 특히 우리나라는 국내기술로 개발된 초전도 핵융합연구장치인 KSTAR의 최신 연구 성과를 발표할 예정이어서 전 세계의 핵융합 전문가들의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현재 IAEA에 등록된 참가자는 39개국, 3개 국제기구에서 1,200여 명에 달하며 역대 FEC 중 최대 규모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산업체와 시민들이 함께하는 핵융합의 장

이번 FEC2010에서는 핵융합 전문가들이 최신 성과를 보고, 공유하는 학술행사 이외에도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부대행사도 진행된다. 핵융합 연구의 꿈을 안고 있는 젊은이들을 위한 IYC(International Youth Conference)와 지식에너지 개발 추진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는 그린포럼(Green Forum) 이외에도 시민들이 참여 가능한 국제핵융합기술전시회 등이 있다. 녹색산업기업관(KSTAR 개발 참여기업), ITER 기업관, 공공부문기업관으로 구성된 국제핵융합기술전시회에는 총 16개의 국내외 업체가 참여하여 핵융합 관련기술들을 소개하고 기관을 홍보하는 자리가 될 것이다. 특히 이번 전시회는 한국미술협회와 공동으로 작업하여 예술이 접목된 과학전시회로서의 차별화를 나타낼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행사 내내 진행될 그린페스티벌 역시 핵융합 올림픽의 재미를 더해줄 행사로 DCC 일원 및 갑천 둔치에서 진행된다. **NRFI**



FEC 개막을 기다리며 FEC 조직위원회 사무총장 김창우

“선진국에 비해 수십 년 늦게 핵융합 연구를 시작했던 우리나라가 핵융합 분야에서 최고권위를 자랑하는 FEC 행사를 이렇게 개최한다는 사실이 정말 감개무량합니다. 역대 최고 규모로 진행되는 이번 핵융합 올림픽을 보다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 대전시 직원들을 포함하여 모든 FEC 조직위원회 사무국 관계자들이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런 노력의 결실로 맺어질 FEC의 성공적인 개최는 세계 핵융합 전문가들에게 좋은 인상을 남기고 미래 에너지 개발의 주도국으로 자리 잡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모두가 즐길 수 있는 다채로운 행사를 준비하였으니 꿈의 에너지인 핵융합 에너지를 경험할 수 있는 이번 기회에 많은 시민 여러분의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